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1호 【루게 제23093호】주제99 (2010)년 5월 21일 (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CNC화를 실현한 관모봉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CNC화를 훌륭히 실현한 관모봉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홍석형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계강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공장의 로동계급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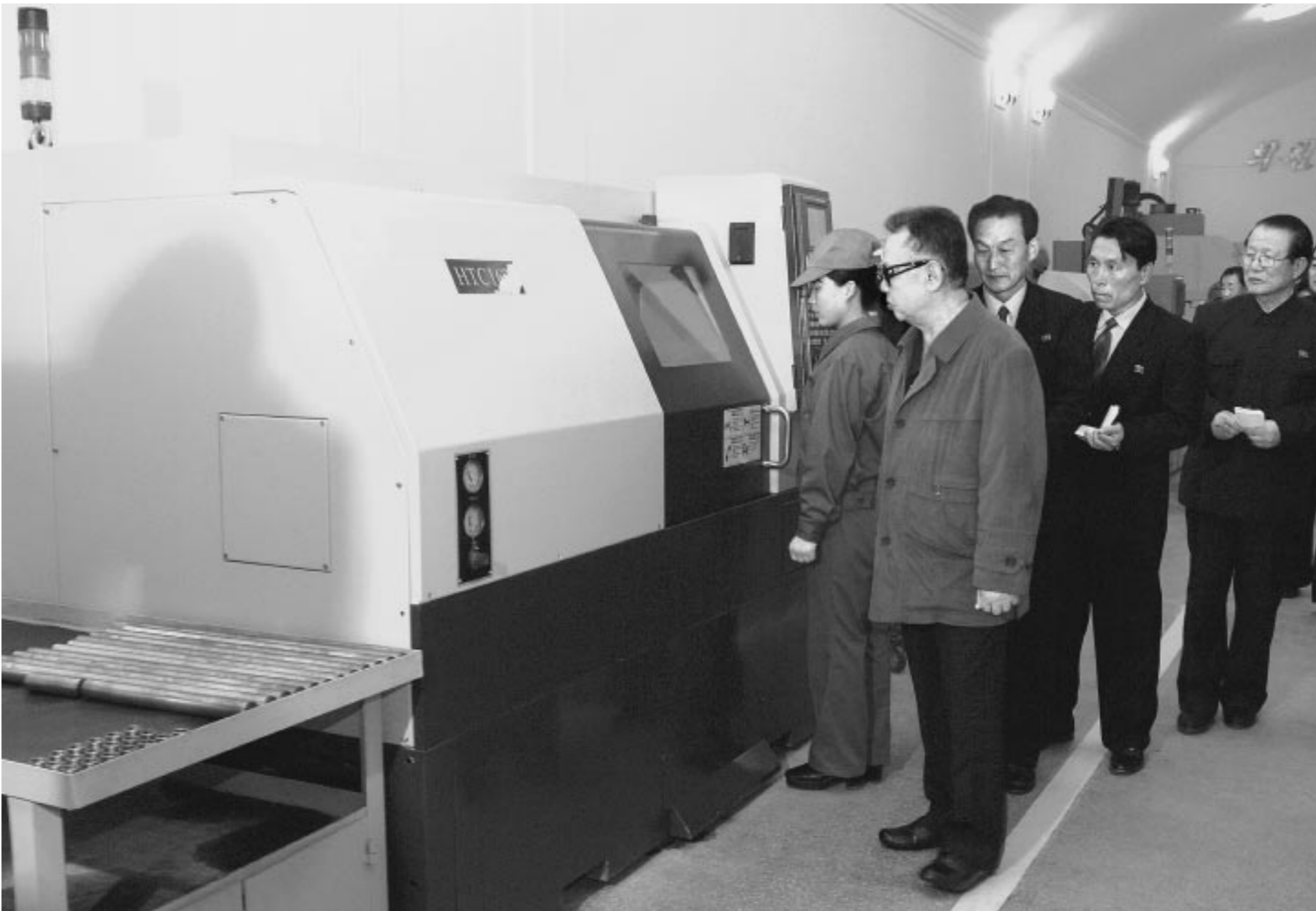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충천한 기세로 첨단을 돌파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공장의 로동계급은 생산에서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림으로써 몇해사이에 공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하고 많은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여왔다.

또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이미 있던 건물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였을뿐아니라 현대적인 설비들을 장비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공장의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시였다.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에 찾아오시어 주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한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개건현대화된 공장의 외부와 내부를 여러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작업장마다에 즐비하게 늘어선 CNC공작기계들과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기계제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과감히 벌려온 결과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시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없이 계

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는 이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이 첨단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은 오늘 우리 경제가 어떤 높이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눈부신 발전은 진보와 혁신으로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온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을 틀어쥐는 사람만이 미래의 정복자로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첨단기술도입과 기술혁신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공장은 현대화에서는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안은 공전과 같

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꾸리기 위해 많은 일을 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관모봉기계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CNC화를 실현한 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과학기술고지를 향해 계속 줄기차게 돌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기간에 점명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제품들의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

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강재를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CNC화가 실현될수록 생산자들의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공장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리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부산물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만든 여러가지 견재품과 일용필수품을 보시고 제품의 질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그들의 복무정신을 치하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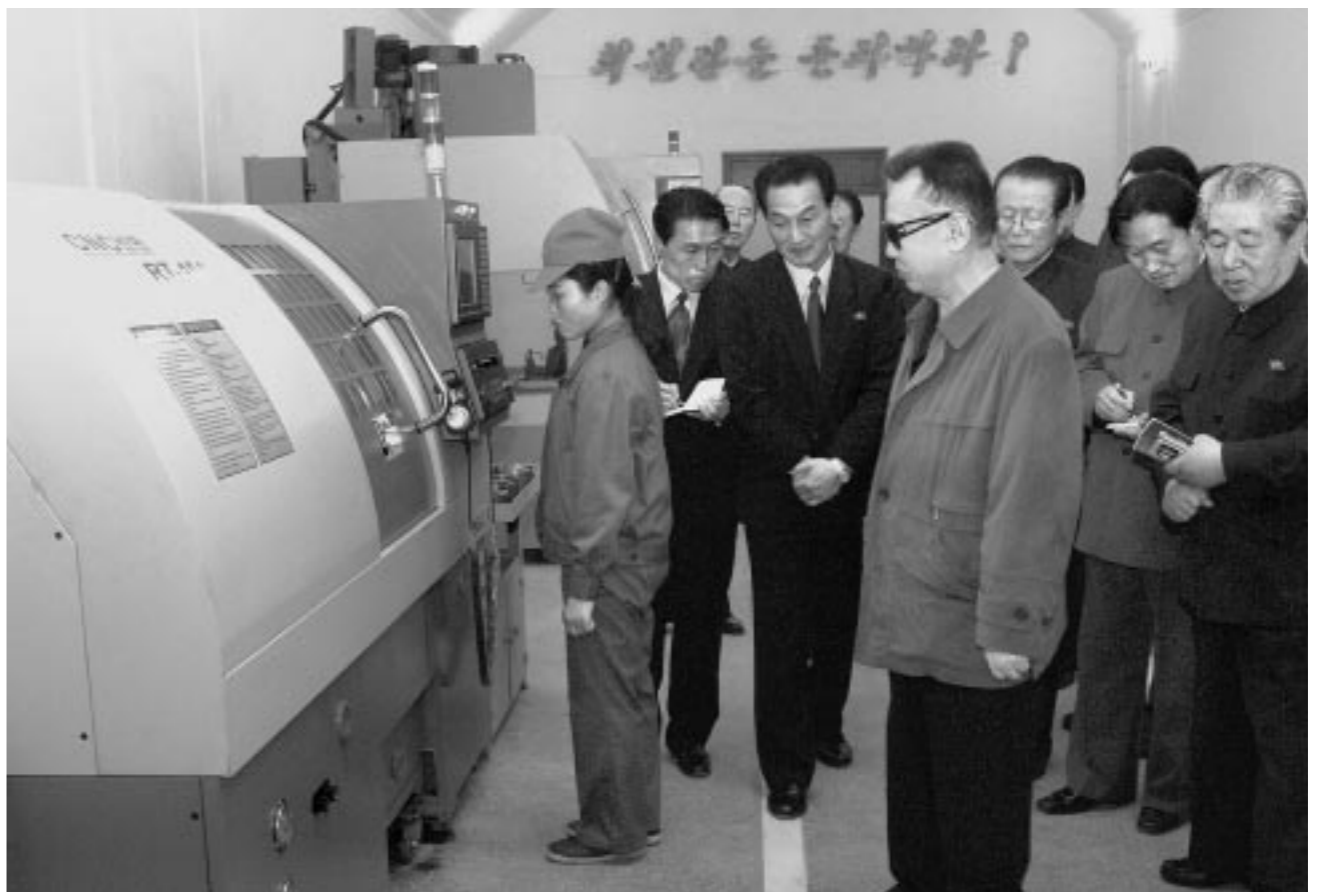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최근년간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공장지도일군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생산과 기술발전, 후방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진행한 결과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경제작전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짜고드는것은 대고조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관모봉기계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인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강성대국의 대문을 앞장에서 열어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CNC화를 실현한 관모봉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랑천발전소건설장과 청진토끼총축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장과 청진토끼총축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홍석형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부장들인 김정희동지, 장성택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계강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한홍표동지, 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자청근동지를 비롯한 도와 건설기업소, 총축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서 맞이한 발전소건설자들과 총축장의 종업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함경북도에서는 어랑천발전소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1호발전소를 조기조업한데 이어 2호발전소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어랑천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판철하기 위한 치열한 돌격전을 벌려 수심리에 달하는 물길굴뚝기와 철관로설치를

비롯한 2호발전소의 어렵고 방대한 건설공사를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있다.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에 불타는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어랑천2호발전소는 드디어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슬한 산벼랑을 타고 줄줄이 뻗어내린 아름다리 철관로들을 보시고 함경북도내 인민들이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우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여러건의 새 기술과 공법을 창안 도입함으로써 절강재를 비롯한 많은 재재를 절약하면서 공사속도를 3년이나 앞당긴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일본새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랑천2호발전소는 1호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위치도 좋고 실리주의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설계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에 기여할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고있는 건설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고무격려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발전소를 독자적인 힘으로 건설한다는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지만 도내 당 및 근로단체조

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성과적으로 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경험은 대중의 힘과 지혜를 옹계 조직동원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우리 당사업방법의 진리성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랑천2호발전소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것만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의 제일 힘든 고비를 넘긴 조건에서 조직사업만 잘 짜고들면 완공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의 전망설계대로 앞으로 계단식발전소들을 건설하면 어랑천을 종합적으로 리용하여 많은 전기를 얻어낼뿐 아니라 이 일대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어랑천발전소 팔향연계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산업을 가로지르며 하늘높이 솟아오르고있는 거창한 대형연계를 보시고 몇해사이고 건설장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연계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공사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연계건설을 중단없이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는

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조국의 흥성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 하나만 놓고보아도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도처에 일떠서고있는 선군시대의 창조물들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위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는 강성대국건설에 기여하게 될 나라의 재부이므로 만반대계로 잘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랑천발전소건설은 많은 작업량을 처리해야 하는 대공사인것만큼 련관된 부문에서 적극 도와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지에서 걸린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과 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환경으로 보아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경제적이란 아니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시면서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함께 중소형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을 계속 철저히 판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경북도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건설된 발전소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동시에 수력자원을 모조리 탐구동원하여 새로운 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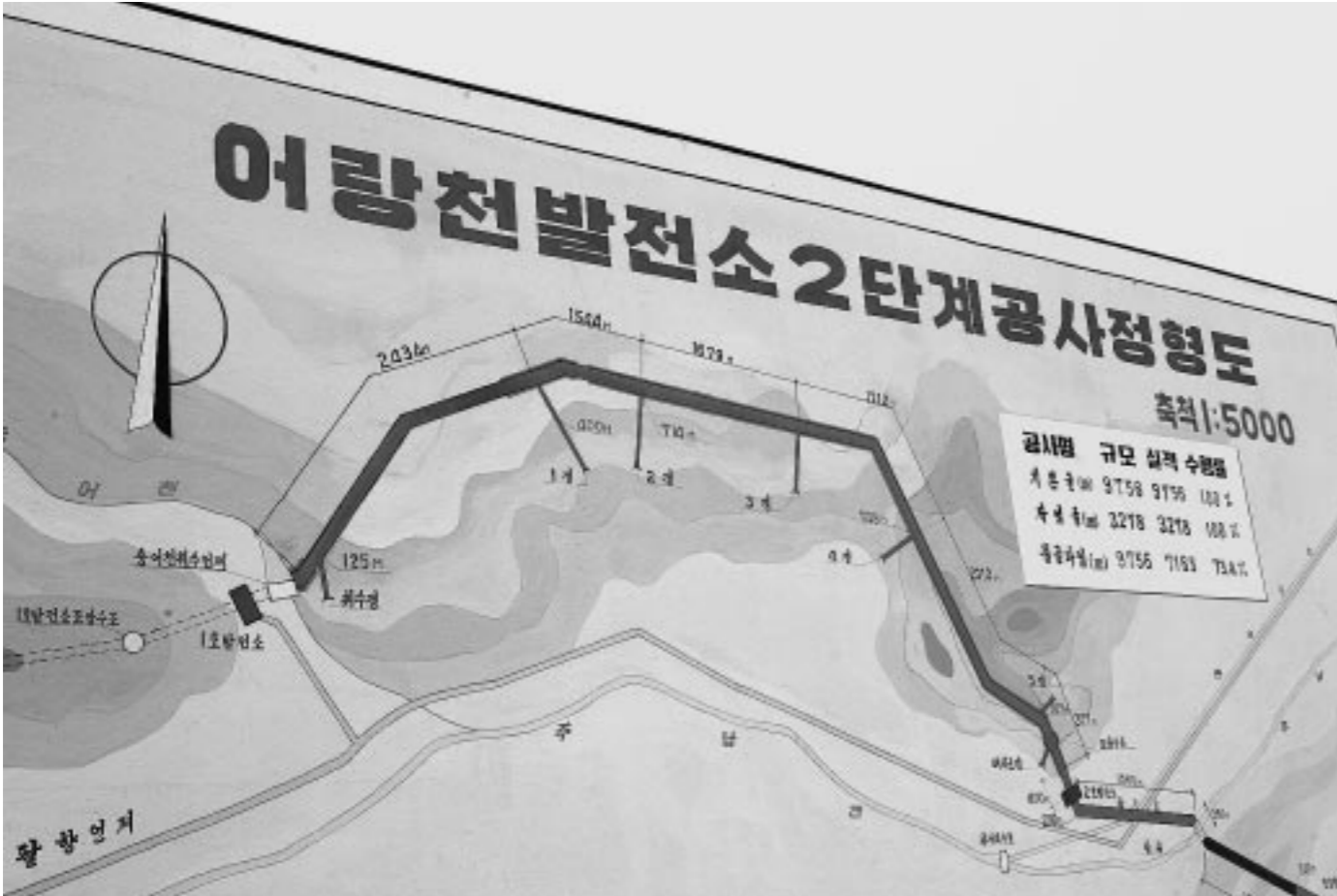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건설자들의 투쟁기세는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일꾼들은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 완강한 실천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체 건설자들이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어랑천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을 자랑스런 운령으로 빛내이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진토끼총축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도에서는 염소와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현대적인 토끼총축장을 꾸리고 운영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랑천발전소건설장과 청진토끼증축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현대적으로 건설된 대규모의 증축장에서 공고한 먹이기를 조성하고 순중번식체계확립을 비롯한 기술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마다 많은 우량품종의 새끼토끼들을 받아 도안의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건설된 토끼우리들과 수의치료실을 비롯한 증축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에서 훌륭한 증축장을 꾸리고 사양관리를 과학화하여 새끼토끼생산을 급격히 늘였으며 토끼와 오리를 공동사육하여 많은 오리고기를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

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토끼기르기에 있어 증축장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풀과 고기를 바꿀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의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한 증축장의 전체 종업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토끼는 생산성이 높을뿐아니라 풀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손쉽게 기를수 있는 경제적실리가 큰 집짐승이므로 토끼기르기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토끼기르기를 대중적으로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량품종 육종 및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먹이보장 대책과 방역체계를 세우며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증축장에서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토끼기르기방법을 더욱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사양방법을 완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뒤산에 펼쳐진 최산과 앞벌에 조성된 풀판을 보시고 이곳 증축장에서처럼 토끼를 기른다면 풀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풍족한 식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어데서나 열소,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기를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더

욱 힘있게 벌려 축산물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함경북도안의 경제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경북도의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 경제지도기관들과 일군들이 대중의 비상한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발전소건설과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선을 비롯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룩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경북도는 금속공업, 제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기업소들을 많이 가지고있으므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경제강국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자들과 청진토끼증축장의 종업원들을 비롯한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또다시 도에 찾아오시어 비약의 활로를 밝혀주시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길로 불철주야로 진행하신 량강도와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는 숭고한 애국애민의 헌신의 장정으로서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어 랑 천 발전 소 건설 장 과 청 진 토 끼 증 축 장 을 현 지 지도 하시 었 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어 랑 천 발전 소 건설 장 과 청 진 토 끼 증 축 장 을 현 지 지도 하시 었 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어 랑 천 발전 소 건설 장 과 청 진 토 끼 종 축 장 을 현 지 지도 하시 었 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랑천발전소건설장과 청진토끼종축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외국순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0일 하만려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친선대표단, 아반 마커 까브라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보호련맹 아시아지역국대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시대와 역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어 만민의 높은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인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였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친선대표단 단장은 방문록에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영원히 빛날것이라는 글을 남기였다.

음악 일화집

《장군님과 노래》(하) 출판

최근 문학예술출판사에서 음악일화집 《장군님과 노래》(하)를 출판하였다.

5개 편으로 구성된 도서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 음악예술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는 과정에 남기신 음악일화 126편이 편집되어있다.

제1편에는 《김일성원수께서 드리는 노래》, 《수령님 한복속에 우리는 사내》,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다》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품모를 칭송하는 노래들이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불후의 령도를 보여주는 일화들이 서술되어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는 수령결사옹위의 노래들, 조국찬가들이 창작보급된 날날에 수놓아진 사연같은 일화들이 제2편에 들어있다.

제3편에는 음악예술의 영예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음악예술을 시대의 정서와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주시는 뜻깊은 내용들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시대에 창작되신 한편련회의 노래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로 떠미는 힘있는 무기,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행진곡이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며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들이 제4, 5편에 수록되어있다.

음악일화집 《장군님과 노래》(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음악예술령도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며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리며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데 기여할것이다.

무모한 《대응》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담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우리는 피뢰해군의 《천안》호침물 사건과 관련하여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이미 역적패당에게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천안》호침물사건을 우리의 억지로 편제시키다가 끝끝내 침몰원인이 우리의 어뢰공격에 있는것처럼 날조된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여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 무슨 《웅징》과 《보복》, 국제사회를 통한 또 다른 문제로 되는것은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까지 결코들면서 이러한 반공화국소동의 앞장에 리명박역도가 서있다는것이다.

문제로 되는것은 감히 우리 혁명의 수뇌부까지 결코들면서 이러한 반공화국소동의 앞장에 리명박역도가 서있다는것이다.

그리고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감히 그 더러운 손끝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원래 위기에 몰릴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으로 《보복》 여론을 돌리는것은 력대 남조선피뢰들이 쓰고있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최근에는 스페기통으로 찾아간 《탈북자》들, 인간쓰레기들까지 이런 모략에 쫓겨나고있다.

나라의 국방과 민족의 안전을 책임지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역적패당의 불순한 음모가 우리에게 대한 분별없는 행동으로 이어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적적인 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역적패당이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련계되어있다고 선포한것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김일당을 남조선현지에 파견할것이다.

역적패당은 우리의 존엄높은 검열단 앞에 함선침몰이 우리와 련계되어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한다.

검열단앞에 내놓는 물증에는 단 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없어야 함을 미리 상기시킨다.

2.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패당에 대해 《웅징》과 《보복》행위를 대항해서도, 우리의 국가적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강경조치로 대담할것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전면전쟁은 《모략국》, 《날조국》을 꾸민 역적패당과 그 추종자들의 본거지를 깨끗이 청산하고 그우에 온 민족이 강성하는 통일대국을 세우는 전면전쟁적이고 전인민적이며

국방위원회는 역적패당의 불순한 음모가 우리에게 대한 분별없는 행동으로 이어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적적인 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우리가 취하는 강경대응조치들은 민족적합과 단합을 파괴하고 남조선사회에 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있는 역적패당에게 예상할수 없는 철추를 내리는 정의의 실천행동으로 될것이다.

3. 역적패당이 그 무슨 《단호한 행동》에 대하여 공언한이상 조선사회를 포함하여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자그마한 사건도 대결광신자들의 도발로 락인하고 한계가 없는 보복라적,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 단격으로 대응할것이다.

《보복》에는 보다 강도높은 보복으로, 《웅징》에는 우리 식의 무차별적인 정벌로 맞대응한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철의 의지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미일당국과 그에 불어 분수줄을 놓아대는 어중이며들에게도 앞뒤를 가려보며 행동할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세계는 동족암살을 위해 꾸며낸 역적패당의 서투른 《모략국》, 《날조국》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제99 (2010)년 5월 20일 평양

지식인들에게 뺏겨진 크나큰 사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봉농업대학 교원 교수, 박사 로제선과 함흥화학공업대학 연구사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리영수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였다.

가난한 로동자의 가정에서 탄생한 태어나 당국노의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한 로제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찾아주시는 무야야 비로소 참된 삶을 누리게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50여년간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해온 그는 어른살이 된 오늘날도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다.

일흔번째 생일을 맞이한 리영수도 당의 품속에서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였으며 오랜 기간 교수교양과 교육과학 연구사업에 열중하면서 가지있는 도서들과 학술문헌들을 집필하고 유능한 기술인재들을 수놓아 키워왔다.

사랑의 생일상을 받아안은 로제선, 리영수와 가족, 친척들은 분에 넘치는 영광을 또다시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대를 이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모든것을 바쳐갈 결의를 가다들었다.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물들을 읽는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또한 학교의 여러 교육시설들을 참관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창덕학교와 길림육문중학교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계보호련맹 아시아지역국대 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이 이란방문을 위하여 2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

이란방문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 출발

에서 김철혁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와 머트레자 머르디온 주

경준 외국문출판사 부사장과 리화혜 주조국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이 중국방문을 위하여 2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제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사회주의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지난 3월 평양전학을 갔던 지는 뜻밖에도 깊은 밤 심계 동통으로 하여 잠자리에서 깨어났습니다. 미처 손쓸새 없이 말흘리며 급급해하던 순간에도 저의 머리속에 떠오른 생각은 친척 하나 없는 외지에서 어찌 나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공연한 격정적이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평양시구급병원에 간 것은 즉시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습습니다. 그날 파장 김동환, 의사들인 장현, 신광명선생님들과 간호원 박명심동무는 수술후 저의 건강을 넘려하여 밤을 꼬박 밝혔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니였습니다. 밤사이에 지방의 한 구급환자가 들어왔다는것을 알게 된 원장

김현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매일같이 저에게 찾아와 모든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육류판 국수를 맛보지 못하던 일생 한이 된다며 받아다준 한호실환자의 할머니와 입원기간 온갖 성의를 다하여준 입원실의 환자들, 특히 퇴원하던 그날에는 열차 칸에서 불편이 있을세라 살뜰히 보살펴준 이들의 사려깊은 마음은 끝내 저를 울리고야말았습니다. 제가 입원해있는 나날은 9일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날 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당의 품속에 하나의 혁명적대 가정을 이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자랑도 삼간군 들 리 계 목

【평양 5월 20일발 조선 중앙통신】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한 정평철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동포조국방문단이 20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